

독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제 860호 현대불교

29

2011년 11월 2일(음 10월 7일) 수요일 / 불기 2555년

모든 거 내 마음 근본자리에 다 놓고 편안케 사세요

어릴 때부터 고생만 하게 됩니다

문 저는 어릴 때부터 가난한 집안의 맏딸로 태어나 동생들 건사하느라 제대로 편안케 살아 보질 못했어요. 그러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한동안 행복했었는데 그이마저 저를 배신하고 떠났으니 이 마음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아픕니다. 사는 게 왜 이리 허망하고 왜 저는 이리도 고생만 하며 살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 우리는 지금 지수화풍으로 바람이 댔기 때문에 모두 지수화풍을 먹고 살죠? 지수화풍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도 할 수 없고 이 땅을 딛고 다니지도 못해요. 붙어서, 또 만약에 떨어진다 하면 날아 돌아가기 때문에. 안 그런가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히 생각하라. 내가 이 세상에 난 것도 감사히 생각하라 이겁니다. 허망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에 났으니까 고생도 하고 아파도 보고, 별짓 다 해 보고 별짓 다 보고 별 생각 다 해 보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내 차원이 높아져요. 그걸 전부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다음 세상에 다시금 내가 나올 때는 정말이지 자유스럽게 나올 수 있는, 정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과정을 높이기 위해서고 우리의 과정을 익히기 위해서고 무르익혀서 맛이 나게 하기 위한 것이니 이 사람으로 태어난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생하는 거를 갖다가 허물치 말라 이겁니다. 고생하는 것도, 왜냐하면 그것이 외려 덕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려운 사람을 알게 되고, 죽어가는 사람을 알게 되고 아픈 사람의 괴로움을 알게 되고, 가난한 사람의 경험을 알게 되고... 모든 경험을 하기 때문에 지극한 그 마음속에서 융솟음치는 그 용광로는 모든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그런 의욕과 그런 능력이 부여된다 이겁니다. 잠시 잠깐,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살 거를 그렇게 그런 것이 언짢다고, 그런 것이 괴롭다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죠.

뭉툰이는 가을 잎과 같아요. 가을이 되면 이파리가, 낙엽이 쳐서 떨어지죠. 떨어졌다고 해서 뿌리마저 죽나요? 그렇듯이 인간의 뿌리는 영원한 것이니까 말이에요. 그러니 내 몸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어떻게 차원을 올리고 내릴 수 있으며 그 경험을, 참 만사만생의 경험을 어떻게 다 할 수 있으리까. 죽어가



그림 · 최주현

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살아나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굶는 사람을 볼 수 있으리까. 자기가 그런 경험을 안 해 보고야 어찌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의 뜻을 알겠습니까? 오히려 복된 사람이 가난한 생활을 하게 되고 고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생을 하고 사는 사람도 한 세상, 부자로 사는 사람도 한 세상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자기 몸뚱이도 버리고 가는 거를, 무엇을 바라겠소? 이렇게 살고 한 세상 가는 거나 저렇게 살고 가는 사람이나 똑같지마는 고생하며 그 괴로움, 그 모든 것을 맛보고 그렇게 한 사람은 경험을 많이 얻어서 남을 리드할 수 있고 고생하는 사람을 밥을 줄 수가 있고, 고생하는 사람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고, 병고에 휘달리는 사람을 마음

으로라도 뜨겁게 생각하고 눈물 흘려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다음에 대통령으로도 태어날 수도 있죠. 대통령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경험을 다 쌓아 본 사람들이나 이 세상에 나와서 대통령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석존도 이 세상에 나오기 이전에 "나는 석가가 돼라! 그런 재목이 되는구나." 이런 거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어요. 오늘 없는 내일은 없거든요. 그러니 누구한테 따귀를 맞는다 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라 이겁니다. 만약에 언덕이 없다면 소가 가다가 그 언덕에 비빌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언덕이라면 바로 그 언덕이 있으니까 소가 비빌 언덕이 없고 평전인데 어떻게 소가 비비고 갈 수 있습니까.

그렇듯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어려운 고

비를, 어려운 아픔을 당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죠. 많이 배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상대방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돌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탓으로 또 그렇게 받을 거고 그건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된 것도 그 사람 탓을 하지 말고 그걸 상관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건 그것대로 자기가 한 대로 하는 거니까. 아주 영원한 컴퓨터에 탁탁 입력이 돼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깐 나는 거기에 상관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모든 게 내가 있는 탓이니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탓으로 돌려라 이겁니다. 그래야 모든 게 풍족해지고 물리가 터지고 세상만사를 다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 풍용력이, 두 팔을 벌리면 이 우주 천하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포

용력이 생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 눈 깜짝할 사이에 늙어 죽고 또 얼마 안 가서 이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 대통령으로서 출마한다고요.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니 있고 없는 거 이런 거, 그 쓰라림을 당하는 거, 이거 잠시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새죠. 그런데 왜 괜히 걱정 근심 하고 괴롭게 삼니까.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죠?

말벌 세상에 미륵부처님이 나신다는데...

문 제가 알기로 말벌 세상에 미륵부처님께서 나타나셔서 세상을 구제한다는 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스님께서 미륵부처님의 화신으로서 이 세상에 중생들을 제도하러 오신 것은 아니신지요?

답 나만이 아니라, 미륵을 왜 미륵이라고 그랬느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쪽에서 돌아서 서쪽으로 돌아서 다시 동쪽으로 오는 것을, 그 과정을 미륵이라고 그러니까, 달리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몸이 흩어지고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서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생활 때, 그게 서쪽으로 갈 때에 미륵이요, 올 때 미륵이란 말입니다. 돌아서 올 때, 그래서 동방에는 아축, 불이 켜진 길로 말하고 서쪽에는 아미타를 말했거든요. 지전국에는 지장을 말했고요. 그랬으니 이 세계, 사바세계는 관세음보살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이 관세음보살이자 지장이자, 깨달으면 지장이요 깨닫지 못하면 중생이다 이런 소립니다. 그러니 중생과 부처를 누가 가졌느냐? 여러분이 배 속에 중생들을 잔뜩 안고 지금 지배하는 부처를 모시고 이려고 있던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죽어 가는데 천도를 시켜 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이 세상에 나지나 않았으면 죽지나 않을 것을..." 이런 말입니다. 이 참 묘한 말입니다. 이것이 아미타와 아축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한 찰나, 한 찰나에 불을 켜다가 한 찰나에 잠시 켜다가 다시 불 켜 일이 있어서 켜면 바로 그게 아축이예요. 그리고 다시 또 켜는 과정이 바로 아미타라고 해도 됩니다. 어린애를 낳았는데 그게 자라서 앞으로 어른이 된다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어른 된 사람은 늙어서 다시 돌아서 애가 되고 애가 되면 애가 되는 대로 어른이 되고 이렇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는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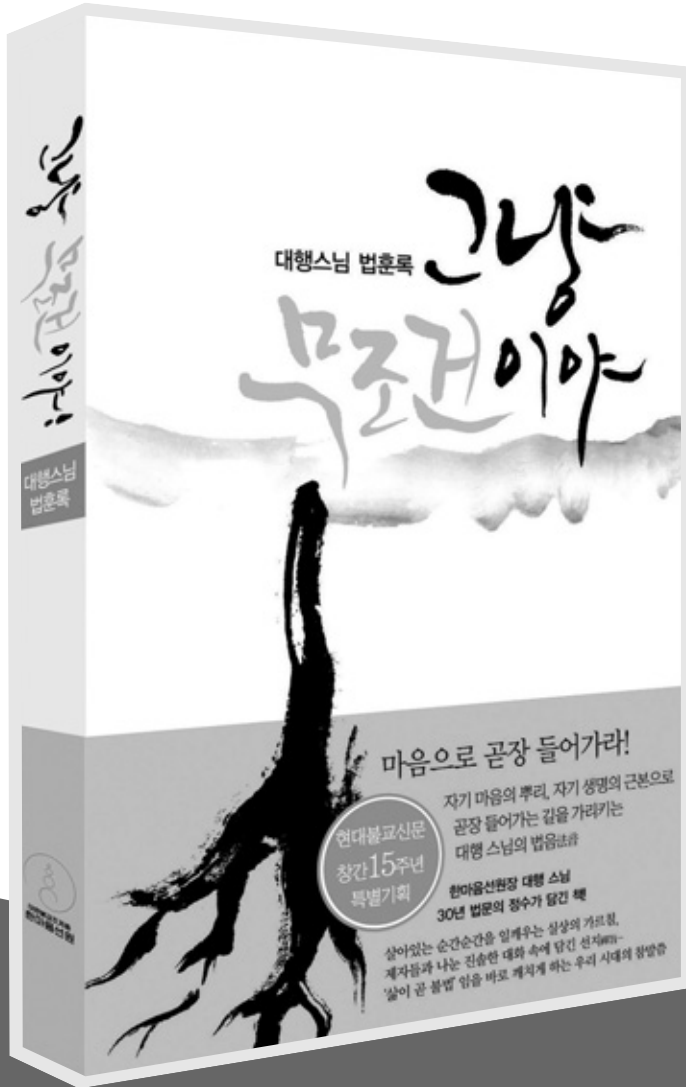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 마음도리 아신다면 어떠한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29면에서 계속

계 돌아 나오는 것이 아미타입니다. 미륵, 서천 국에 있는 것은 아미타요, 돌아서 나오는 건 미륵이요. 동쪽에 태어나는 거는 바로 깨달음이나 태어남이나 아주 그게 흡사한 이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뜻만 알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잘 알아서 이 자기를 깨닫지 못하는 이치가 많습니니다. 그러니까 안으로,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다 거기에 놓고 가다 보면 그 아는 것도 나중에 나를 깨닫고 보면 그거는 저절로 거기 부합이 돼서 쓰게 되죠.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길고 멀게 그 미륵을 생각 하지 마시고 '해가 자라는 과정이 미륵이고 그 저 다 자라서 나가면 바로 아축 부처님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냥 편리하게. 그걸 일일이 따져서 그럭하다가는 정말 자기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거는 나중에 깨달아 보면 스스로서 거기서 뜻이 나오게끔 돼 있는데 뭘 그렇게 그림 나니까?

기독교에도 심계라는 게 있는데...

문) 기독교에서는 심계라는 게 있어서 저희 기독교 신자들은 심계를 잘 지키려 합니다. 근데 스님께서는 신이라는 거를 밖으로 찾지 말라고 하신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은 신을 찾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답) 그건 자성신을 찾으라고 그런 거지 외부의 신을 찾으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기독교에서도 그렇지만 불교에서도 그렇고 가톨릭교에서도 그러죠. 심계를 받는다 하지만 이 심계뿐만 아니라 팔정도나 육바라밀이나 모두 받는 게 많아요. 심계니 오계니 하고 모두 받는 게 많은데 그것을 다 여기는 할 수는 없고, 그 받는 것을 다 몽땅, 심계를 받았으면 몽땅 주인공에다 맡겨 놓고 그냥 굴러라 이겁니다. 그러면 그 계 받은 거를 몇 배 더 계율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 계율을, 즉 말하자면 심계를 받았으면 그 심계를 다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다 내 마음 근본자리에다 맡겨 놓고 하는 사람들은 심계보다도, 백이 넘는, 계율이, 이백이 넘는, 삼백이 넘는, 해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여유하게 모가 나지 않게 그냥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걸 잘못하든 잘하든 모든 거를 거기다가 놓고 편안하게 사시면 됩니다. 또 사람들이 모두 그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잘못되고 잘된 거는 더 잘 알고, 잘못하고 잘못 안 하고 이라는 것도 더 잘 알죠. 그러니까 내 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너무 욕심 부려서 강을 뛰어넘으려 다 보면 강에 빠지게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강을 뛰지 않죠,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그와 같이 그 모든 거를 이렇게 침착하게 생각하고 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말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심계도 뭐 능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해되십니까?

마음공부 하면 승천할 수 있나?

문) 스님께서는 살아 있을 때 이 마음 도리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승천할 수 있을까요? 굳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요?

답) 이 도리를 진짜로 아신다면 어떠한 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몸 떨어지기 전에 이 도리를 알아야 한시를 놓을 판인데, 사람으로만 태어난다는 법이 없습니다.

옛날에 스님끼리 도반으로 살다가 한 스님이

에 나온 탓이지 내가 없었더라면 누구와도 부딪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 탓으로 돌려라. 두 번째는 모든 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항상 잘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까 고정된 게 하나도 없으니 잘할 때까지 또 두고 보라. 그러면 대번 돌아간다. 이 마음을 내 주고 바로 주인공에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같이 불이 들어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걸 그저, 남이 이러든 저러든 눈 똑바로 뜨고 귀 똑바로 세우고 냄새를 똑바로 맡고 생각을 똑바로 해서 이 모든 업식에 분이 되게 생각을 하십시오. 그레아만이 외적이 없으니까. 그 어려운 병고는 오지 않을 것이고 병고

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약사발을 내린 거죠, 왕의 권리로. 그런데 달마 대사는 죽어서도 그 양 무제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 무덤 속에 묻혔는데 거기 신발 한 짝만 남겨 놓고서는 딱하니 주장자에다 신발 한 짝을 꿰어 가지고 나왔는데, 즉 말하자면 저 왕이 보내는 그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대사하고 만났단 말입니다. 아, 만나니깐 인사를 깎듯이 하고서 "어디로 가십니까?" 하니가 "난 서쪽으로 간다." 그러고 가더랍니다. 그러니깐 양 무제한테 와서 그 얘기를 하니가 아, 자기가 죽어서 벌써 묻었는데 아니, 달마 대사가 웬일이냐고... 그래서 산소를 파 보니까 거기에 신발 한 짝만 남아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 무제가 생각했대요. '저승에도 달마 대사가 있고 이승에도 달마 대

했다든 겁니다. 그러니 아니, 그거 됐다고 그러니 공덕이 있을 법이 있습니까?

공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예를 들자면 내가 아파도 이 체내 안에서 한마음이 돼 주는 게 이치고, 바깥에서도 한마음이 돼서 그냥 전부 한마음으로 들게 되자 그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대로 따로 없기 때문에, 이 몸이 공해서 잘나잘나 돌아가기 때문에, 비행기 프로펠러 돌아가듯 먼지 앓을 자리도 없기 때문에 병 불을 자리가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병이 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한마음으로 돌아가다 보면 그냥 병도 나아 버립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고 하는 거보다도 우리는 항상, 나는 그레요 우스갯소리도 되지만은 진짜로 그레요. "그 병 낫게 해 주면 날 뭘 줄 거야?" 그러죠. 그러면 "공부를 잘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고마운데 제가 뭐는 못 드렸겠습니까? 제가 짬이 있고 가겠습니까? 제 몸도 버릴 텐데." 아,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달라 하시는데 대로 드려요." 이겁니다. 내가 도둑입니까, 달라는 대로 드리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억만 냥을 갖다가 시주를 한다 하더라도 이 도리를 모른다면 공덕이 될 것이 하나도 없고, 단돈 천 원이라도 그 도리를 알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공덕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여러분이 참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에 좀더 화목과 또는 평화와 사랑, 그리고 가환이 없이, 병고가 없이 재미나게, 여러분이 한생각에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가난하지만 베푸는 삶 살고 싶어요

문) 저희 집이 좀 가난한 편이지만 그래도 베푸는 삶을 살고 싶은데 저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답) 베푸는 게 무슨 돈이 있어서만 베푸는 게 아니거든요. 남을 섬기지 않게 한다, 남을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다, 남을 무시하지 않는다, 의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도의나 또 은혜나 이런 문제 등등을 모두 종합해서 생각할 때 남을 섬기지 않게 하라. 내 마음의 보시가 돈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보시를 하되 이거는 마음이 더 큰 보시나 이렇다고 금방 밥을 굶을 텐데도 밥 먹을 걸 안 준다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강푹을 들고 온 거지한테도 밥을 그 강푹에 담아 주고, 병자한테도 반찬은 따로 물 흐르지 않게 따로 줍니다. 따로 주면서 마음속으로 '다시는 이렇게 얻어먹지 말고 네가 농사지어서 내가 추수해서 내가 먹도록 해라.' 하고 마음을 내 주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보시예요. 그러니 가난하다 해도 얼마든지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어떠한 문제라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다.
잘못했으면 잘할 수도 있고 잘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다.
항상 잘못하라는 법은 없다. 그러니 잘할 때까지 두고 보라.
그러면 대번 돌아간다.
바로 주인공에다 맡기고 마음을 내 준다면 내 마음과 같이 돌아간다.
같이 불이 들어온다.

죽었는데 말입니다. 아, 까치 등우리로 가더랍니다. 영혼이. 그래서 저놈 어디로 들어가는냐고 그냥 주장자라도다 내리쳐서, 자꾸 그 주장자라도 인도를 해서 사람 집으로 들여보냈답니다. 또 한 사람은 아주 스님하고 친밀한 법사였다 합니다. 법사님이 딱 열반을 하셨죠. 연세가 많을 때까지 어떤 일도 그렇게 마다 안 하고 열심히 사셨죠. 그랬는데 스님이 보시니까 아이, 제비 등우리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로 쳐서는 내려가지고선 몸뚱이 속으로 다시 넣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살아났죠. 다시 살아나니까 물었더랍니다. "왜 제비 등우리로 들어갔느냐." 그랬더니 거기 그렇게 좋더랍니다. 뭐 그 삼중집에 그냥 으리으리하더랍니다. 그러니 그거 환상에 녹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환상에 녹는단 말입니다. 내가 살아서 이 도리를 모르면 내 업식에 눌러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 없고, 또는 빠져 죽을까 봐 못 건너가고, 또 타 죽을까 봐 못 넘어가고 이런다고요.

그러니 첫째, 이 공부 하실 때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남들하고도 그렇고, 남을 나쁘게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우리 스님네들더라도 항상 그렇습니다. "잘못했든 잘했든 네가 이 세상

가 났다 하더라도 병고가 없어질 것이고, 이 모두가 다, 남을 해(害)하게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도리를 찾으려면 아이구, 십만 팔천 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 도리를 진짜로 그렇게 해서 실천공행하라는 그 요지를 내리신 거지, 너희들 죽어서 천당에 가니까 그렇게 믿어라 이런 건 아닙니다. 살아서 천당 맛을 보고 살아서 지옥 맛을 보고, 살아서 삶의 보람을 알고,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만 사람답게 사는 건지도 알게 되고, 이런 걸 가르치신 거지 아니, 죽어서 승천하라고, 천당에 가라고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세세생생에 끝간 데 없이 영원한 삶에 이르기까지 길을 인도하신 거죠.

꼭 시주를 해야 정성이 되는지요

문) 보통은 절에 가보면 부처님 전에 많은 공양물을 올리고 시주를 하면서 바라는 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꼭 그렇게 시주를 해야 정성이 되는 건지요?

답)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양 무제가 스님네들 옷을 많이 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했어요, 왕이. 그런데 달마 대사한테 "저는 얼마나 공덕이 되겠습니까?" 하니가 "너는 공덕

사가 있구나. 달마 대사가 이렇게 돌아 안인데 나를 가르치느라고 그런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하고선 땅바닥을 두드렸대요.

그랬듯이 천만 가지를 갖다가 저 법당에다 올려놓고 빌어 보십시오. 대가가 오나, 여려분 위안은 될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무개를 위해서 이렇게 정성을 들였으니까 좋은 일이 오겠지.' 하는 위안.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 마음으로써 내가 잘되기를 바라기 이전에, 누구든지 못하는 사람 보면,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 갖다 주세요. 가다가 밥 굶는 사람이 있으면 쌀도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게 잘못이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시주를 하고,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고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내가 가게 갈 때 말입니다, 물건을 사러 갔기 때문에 돈을 그 사람 줬다고 생각 안 하고 갖다가 주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그냥. 아니, 돈 갖다 주면 그냥 갖다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주상으로 그냥 하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올 게 옵니다. 그대가가. 그게 공덕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꼭 물건을 갖다 주고는 그 값어치를 받아 가지고 가려고 그냥 만날 저 사람 내가 줬다는 거예요. 내가

Hanmaum Choir Festival

선법가는
남을 건질 수 있고 남을 이롭게 할 수 있고
평화롭게 할 수 있는 가사를 통해서
전 우주 법망에 정신계와 물질계가
돌아나기 두루 공심으로 무주상 보시가 되어
전체 마음들이 개선되고 지혜로워지게끔하여
영원한 삶을 얻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선법가를 노래하고 하지만
자꾸 부르면 지구하게 영원하는 관이 됩니다.
그리고 단합이 될 수 있고요.

대행 큰스님 禪法歌 '선법가는' 중에서

"일체가 한마음으로 돌아가네"
All Beings, Living Together as One

한마음 음악제

2011.11.12 (토) 17:00 - 13(일) 15:00, 19:00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 출연 | 황병기, 이춘혜, 이승욱, 전제덕
한마음선법합창단, 국립국악관현악단, 이화첼리, 하트시각장애인체임버오케스트라, 니르바나오케스트라
| 주최·주관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 후원 |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서울특별시
| 티켓 | R석 50,000원 S석 30,000원 A석 20,000원
| 예매 | 세종문화회관 인포샵 02-399-1114-6
인터넷 티켓 1544-1555 http://ticket.interpark.com
| 문의 | 한마음선원 031-470-3100 http://www.hanmaum.org